

비판적 생태문예학을 위하여*

박희병**

I.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현재 시간은 1999년 10월 29일이다. 20세기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20세기의 종언과 새 밀레니엄의 시작. 비록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획된 시간단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필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지금껏 수없이 물어져온 이 물음을 다시 묻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 강물이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여 수돗물로 쓰기 위해서는 염소의 투입량을 계속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염소의 섭취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강물의 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경우 그때에도 여전히 정화 장치에 의해 각종 중금속과 화학물질들을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제대로 걸러내고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또 설사 심하게 오염된 강물을 기술적으로 정화해 낼 수 있다손 치더라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은 어찌할 것인가. 바다의 어폐류는 중금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8년도 중점연구소 지원 연구과제(3년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다(KRF-1998-005-B00103).

** 서울대 국문과 교수

속과 화학물질에 오염되고, 우리는 이 오염된 이폐류를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이폐류를 섭취할 때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나타날 것이며, 그 장애는 어떤 유전적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장애와 유전적 영향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을 야기할 것인가. 두렵고도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어떤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쓰레기의 소각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는 대기 중의 나이트록신을 매일 매일 체내에 축적해 가고 있다. 호흡기와 관련된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가, 감기의 만성적 이환(罹患), 폐암의 증가는 대기오염과 깊은 관계가 있다.

대기오염의 결과인 산성비는 또 어떤가. 산성비에는 공기 중의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를 흡수한 식물을 다시 우리가 섭취한다. 또한 산성비는 흙을 산성화시키 산림을 황폐화시킨다. 산림의 황폐화는 수해로 이어지며,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산림이 황폐화될 경우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자연의 동반자들을 상실한 우리가 과연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먹거리는 어떤가. 우리들이 섭취하는 음식에는 늘 이! : 정도의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환경오염, 혹은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파괴, 인간의 비인간화로 연결된다. 다음 시는 그 점을 섬뜩한 이주로 말하고 있다.

무뎌야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시대가 들어선 느낌이나,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미널끈을,
저 곤뚝들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해!
사공 속에 고무인형 키워온 듯

무너아를 낳고 산모는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수리 털을 하루종일 뽑아댄다.¹⁾

II. 이런 상황은 왜 초래되었는가

이런 상황은 산업화의 결과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0년대 이래 개발독재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개발독재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성장’ 이데올로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산업화를 급속도로 진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속도, 경제적 효율성, 양적 확대, 자이언트에 대한 지향을 근간으로 하는 성장의 ‘신화’가 굳건히 자리잡았다. 이 성장의 신화는 절대진리로 받아들여졌으며, 지금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한국에 있어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1980년대는 한국이 중진국 자본주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시기다. 이 시기에 한국자본주의는 그 규모를 확대하면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국내의 산업시설을 크게 확충했다.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다. 이처럼 1980년대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 이래 누적되어온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간단한 역사적 개괄에서 알 수 있듯, 생태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의 동기에 따라 움직이며, 이윤의 극대화가 그 목적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후기 산업자본주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했다. 이 체제는 자원의 끝없는 ‘짜냄’ 위에서만 성립 가능하며, 엔트로피를 계속 증대시킨다. 엔트로피의 증대란 곧 쓰레기가 늘어남을 뜻한다. 쓰레기는 자연 생태계의 본질인 ‘순환’과 ‘재생’의 밖에 있는바,

1) 최승호 시인의 「공장지대」라는 시 全文이다.

계속 집적(集積)될 뿐이다. 이 집적은 지구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압적 현상으로, 그 자체가 생태계의 교란이자 파괴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모두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속성을 갖는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충동하고 부추겨 욕구의 수준을 높여가며, 필요한 욕구 이상의 욕구를 끝없이 개발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의 소비패턴은 항상적으로 과소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모든 욕망을 과잉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자연생태계만이 아니라 사회생태계에도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다. 빈부격차, 물질화, 소외, 경쟁, 공동체의 붕괴, 실업, 타자(他者)의 식민지화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질서를 이끌고 있는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는 제1세계와 제3세계간의 빈부격차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내부의 빈부격차를 신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연생태계, 사회생태계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정신생태계에도 큰 폐란을 낳고 있다. 노동분업은 인간과 사물이 맺는 관계를 아주 얽매한 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인간과 사물간의 깊고도 진정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체험이 성립되기 어렵다. 체험이란 근본적으로 고유하고 진일적인 것이므로, 모든 것이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조건에서 진정한 체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사물과의 깊은 유대를 가능케 하는 이런 체험의 소거(消去)는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정신이 그 자신의 모태(母胎)라 할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상실하고 사물에 대한 정성스런 내도나 연민을 잃어버린 것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우리 학문은 생태계의 위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인류가 봉착한 생태계의 위기와 관련해 서양 학자들은 대체로 1970년대 이래 활발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위기가 왜 초래되었는가, 그리고 그 극복방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²⁾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 학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가 아닌가 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산발적인 관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역시 이 무렵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서양에서 나온 에콜로지 관련 책들이 번역되거나 서양에서 제기된 각종 에콜로지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런 작업은 주로 서양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수준은 아직 외국학문을 국내에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아직 ‘우리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적어도 ‘우리 학문’이라는 말을 쓰려면, 외국의 학적 성과에 대한 이해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대로의 창조성과 테오리(Theorie), 혹은 우리대로의 현실분석과 사유의 온축(蘊蓄)이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한국이 처한 생태적 현실과의 고투를 통해 우리대로의 사유와 실천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오히려 학문의 영역 내부에서가 아니라 학문의 영역 밖, 혹은 학문의 ‘경계’(境界)에서 나타났다. 『녹색평론』이 그것이다. 『녹색평론』은 비평적 글쓰기, 그리고 자유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생태문제의 심각성과

2) 서양에서 제기된 에콜로지의 다양한 유파에 대해서는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New York: Routledge, 1992) 참조.

우리 삶의 황폐함,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가 만일 산업사회를 넘어 새로운 삶의 양식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사고방식의 획기적 전환과 일대 자기결단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녹색평론』의 존재방식과 작용방식은 이 땅의 학문적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을 펴 부끄럽게 만든다. 그러나 『녹색평론』의 존재방식과 작용방식의 미덕은 인정하더라도 에콜로지에 대한 학문적 모색은 또한 그것대로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학문적 모색을 통해 국가, 제도, 시장, 소유, 생산, 소비, 이데올로기, 과학기술, 노동, 문화, 성, 일상성 등, 크고 작은, 그러나 상호 긴밀히 얽혀 있는, 이들 제반 영역의 문제를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철저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IV. 우리의 문학연구는 생태계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문학은 우리의 삶, 특히 정신 방면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21세기는 영상과 디지털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이고 그 때문에 문학의 입지는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학 본연의 의의는 역설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문학연구는 문학에 관한 학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연구는 문학의 동향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 근년의 한국문학이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 ‘생명’에 대한 관심이다. 이런 면모는 특히 시에서 두드러진다. 이른바 ‘생태시’, ‘생명시’, ‘환경시’, ‘생태환경시’라 일컬어지는 시들이 한국문단에 등장한 것은 대체로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다. 김지하씨는 이런 흐름의 한복판에 있다. 특히 씨는 ‘생명사

상'을 주창하여 문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근년의 한국문학이 보여주는 '생명' 담론은 씨로부터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한국문학의 이런 변화를 문학연구, 특히 문학비평은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런 시, 혹은 이런 시를 쓴 시인들을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검토한 글들이 상당수 나왔다.

그러나 이들 평문(評文)은 대체로 학문적 엄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의거하고 있는 생태주의적 관점 자체도 단순소박한 데 머물러 있다. 또한 문제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인상적·주관적 논의로 흐르거나 추상적·낭만적 경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생태계의 위기를 '자연/인간', '자연/문명'의 대립이라는 단순구도 속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단순구도는 자칫 우리로 하여금 '2차 자연'이라 할 사회와 관련된 문제영역들, 이를테면 세계체제, 국가, 제도, 생산과정, 계급, 이데올로기 등의 영역에서 눈을 돌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않다.

V.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왜 필요한가

필자는 생태계와 문학의 관련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생태문예학'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생태문예학은 문예학의 한 분과로서, 생태주의와 문예학의 결합이다. 그러나 '문예생태학'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문예학'이라고 한 데서 드러나듯, 생태문예학은 단순히 생태주의를 문예학에 적용하고자 함이 아니라 문예학을 통한 생태주의의 심화와 확대이다. 그러나 생태문예학을 통해 생태주의만 심화·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문예학 자체도 심화·확대된다. 생태문예학은, 생태주의의 구조와 전망을 한층 풍부히 함과 동시에 문학의 사회적 작용을 통해 인간 의식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생태적 실천을 넓혀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생태문예학은 순수문예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

태계와 인간의 관련, 생태계와 문학의 관련이라는, 그간 완전히 문예학적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되 그럼에도 산발적으로만 관심이 기울어져 왔을 뿐인 문제영역에 논의를 집중하면서 새로운 토픽들을 개발함으로써 문예학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문예학의 주요한 개념들이 생태주의적 견지에서 재검토되거나 재규정 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생태문예학’이라는 말 앞에 ‘비판적’이라는 형용어를 얹은 것은 왜인가? 사회비판의식을 중시하는 생태문예학이라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다. 현재 생태주의가 다기한 양상을 보이고 있듯 생태문예학도 장차 다양한 방향을 보여 주리라 예상되거나, 필자는 생태문예학이 특히 투철한 비판성을 담보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굳이 ‘비판적’이라는 형용어를 얹지 않더라도 생태문예학은 그 내핵에 강렬한 사회비판의식을 담지함을 그 본령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태문예학은 절박한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요청된 학문분야로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VI. 비판적 생태문예학의 과제와 방법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기존의 문예학과 전연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필요할 경우 기존 문예학의 성과를 흡수할 수도 있지만 생태계와 문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그 핵심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기존 문예학의 문제들과 구별된다. 다시 말해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기존의 문예학과 의제설정이 다르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의 회복을 위해,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물음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문학이라는 특수한 정신현상이자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에콜로지를 포함해 사회학, 정치학, 철학 등 그 어떤 학문과도 다르다. 요컨대 비판

적 생태문예학은 학문으로서의 독자적 영역과 존재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학제적(學際的) 학문으로서의 성격 또한 강하다. 이는 비판적 생태문예학이 갖는 그 특유의 문제의식에서 연유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생태계와 문학의 관계를 문제삼는다고 했기니와, 비판적 생태문예학에서 ‘생태계’라는 개념은 자연생태계는 물론이고 사회생태계와 정신생태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생태계 가운데 자연생태계가 가장 근원적인 자리에 있다. 사회생태계는 자연생태계로부터 성립하지만, 자연생태계와 구별되는 독자성이 있다. 정신생태계는 자연생태계 및 사회생태계로부터 성립하지만, 자연생태계나 사회생태계와 구별되는 독자성이 있다. 세 가지 생태계 중 근원의 자리에 있는 자연생태계를 ‘1차 자연’이라 부른다면, 자연생태계에서 비롯하는 사회생태계는 ‘2차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자연생태계 및 사회생태계에서 비롯하는 정신생태계는 ‘3차 자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³⁾ 이 셋은 긴밀한 피드백(feedback) 관계를 유지하며, 역동적 균형을 요한다. 긴밀한 피드백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 쪽의 이탈은 다른 쪽에 영향을 끼치면서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이처럼 생태계를 자연, 사회, 정신의 상호관련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의 필요성을 제언함을 1차적 목표로 삼는 이 글에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의 과제를 그 세목(細目)에 있어서까지 자세히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비판적 생태문예학의 몇 가지 기본 원칙 및 방법론적 전제를 확인하면서 그 과제의 대요(大要)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라

3) ‘1차 자연’이니 ‘2차 자연’이니 하는 말은 일찍이 헤겔(G. W. F. Hegel)이 썼던 말이며, 사회생태론자인 북친(Murray Bookchin)이 자신의 이론체계 속에서 그 용례를 발전시킨 바 있다. 그러나 헤겔에 있어서는 1차 자연이나 2차 자연보다 정신(Geist)이 더 근원적·규정적이다. 또한 헤겔이나 북친은 ‘3차 자연’이라는 말을 쓴 바 없다.

는 위기상황에 문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요청으로부터 성립되었지만,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사회생태계 및 정신생태계의 문제와 일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 과제와 취급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다.

비판적 생태분예학은 이러한 방법론적 전제로 인해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명, 자연과 문학을 불역사적이거나 불사회적으로 관련짓는 태도에는 반대한다. 비판적 생태분예학은 ‘자연/인간’, ‘자연/문명’, ‘자연/문학’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사회역사적 개개항에 대한 고려가 본질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비판적 생태분예학은 사회비판과 이데올로기 비판 등, 현존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그 주요원칙의 하나로 삼는다. 이 점에서 비판적 생태분예학은 현실에 대한 합리적 비판의식을 결여하거나 현실로부터의 이탈을 보여주는 제반 주의·주장에 의구심을 품으며 그 폐해를 경계한다.

비판적 생태분예학은 비판의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명심(冥心)’에 의해 사물(자연)의 지극한 경지를 깨닫고자 하는 태도 또한 중시한다. ‘명심(冥心)’이란 18세기 조선의 비판적 문학가인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강조했던 개념으로서, 외물(外物)과 내이(內我)의 구분이 사라지고 둘이 통일된 마음상태, 감각적 인식을 넘어선 주객합일의 심경(心境)을 뜻한다.⁴⁾ 명심은 개이(個我)의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해주며, 인간과 자연의 깊은 합일감을 깨닫게 한다. 박지원은 이 합일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도’의 체득과정이며, 예술 창작의 비의(秘義)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명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비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배치될 수도 있다. 하지만 둘은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 이 조화는, 모든 진정한 균형이 그렇듯, 아슬아슬하고 깨어지기 쉽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조화야말로 비판적 생태분예학이 가야 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탁월한 분예이론가이자 대분호인 박지원은 이 놀의 조화로운 결합

4) 줄지, 『한국의 생태사상』(돌베개, 1999), 318면 참조.

을 우리에게 현시(顯示)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명심은 물아일체의 도를 깨닫고 정신의 자유를 누리는 마음을 담보함과 동시에 사심없는 마음,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마음을 담보하는 개념이기도 하다.⁵⁾ 이 명심을 방법적 준거로 삼아 연안은 사실주의와 사실주의를 넘어섬의 자재(自在)한 혼용, 사회에 대한 비판적·해방적 인식과 ‘오도’(悟道)라는 심오한 정신적 경지의 동시적 추구, 사실과 깨남, 자연과 사회, 형이하와 형이상의 통합을 이루어 내고 있다.⁶⁾ 명심은 또한 문학적 언어를 부단히 사물에 수렴시키면서 쇄신하고자 하는 태도,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대한 성찰적 사유를 낳고 있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의 사회비판의식은 기존 문예학의 그것과 달리 생태적으로 정향된 비판의식이다. 이 점에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에서는 비판과 명심의 결합 가능성이 현충 높아지게 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사회적 비판성을 강조해온 문학 노선과 자연과 개인의 독자적 가치를 중시해온 문학 노선을 지양함으로써 새로운 종합을 이룩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단순한 발전사관이나 생산력주의에 함몰되지 않음은 물론, 정신주의의 폐해에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에서는 비판이 명심 위에서 작동하고, 명심은 비판과 유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다음의 네 영역, 즉 (1) 이론, (2) 텍스트 연구, (3) 비평, (4) 문학교육을 포괄한다.

이론 영역에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이 당장 착수해야 할 일은 자신의 독자적 논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원리와 원칙들을 수립하는 일이다. 나아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묻고 답하는 일,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 자연미와 예술미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숙고하는 일, 문학이 구사하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생태적 관점에서의 통찰, 생태적 심미론의 정립, 형식·내용·비유·상징·알레고리에 대한 새로운 성찰, 생태계와 문학적 상상력의

5) 위의 책, 333~334면 참조.

6) 위의 책, 339면 참조.

관계에 대한 검토 등등이 비판적 생태문예학이 이론 영역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한 과제들이다.

텍스트 연구의 영역에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생태계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필요가 있다. 즉 생태계가 텍스트 속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텍스트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명을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에서는 텍스트가 자연생태계·사회생태계·정신생태계와의 간텍스트성 위에 성립된다고 보며, 이 간텍스트성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특정한 텍스트의 사회역사적 의의 및 생태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의 텍스트 연구는 생태학, 정치경제학, 페미니즘, 사회학, 역사학, 철학, 언어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경계를 넘나든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미평의 영역에서도 아주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미평을 통해 자신의 생태적 문제의식을 최대한 구체화시키며, 그 실천성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미평을 통해 국가, 체제, 이데올로기, 생산 및 소비과정의 문학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역사적·구체적 계기에 즉(卽)하여 파악하고, 생태계 균형의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문학창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지 그 방향타를 제시해야 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그 본질상 문학교육에 큰 관심을 쏟는다. 문학교육은 인성(人性)에 대한 교육인과 동시에 심미적 교육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문학교육을 잘 활용해 사람들이 자연관을 수정하고, 사고방식을 전환하며, 사물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현대문예학의 성과, 맑시즘의 비판의식, 동아시아 사상의 전통을 비판적·선택적으로 수용한다. 현대문예학의 성과를 수용한다고 해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이 기존의 문예학적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앞서 언급했듯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그 문제들과 의제설정이 기

존의 문예학과 관련하여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에 유의하기는 하나 마르크스의 사상에 내재하는 산업주의적 성향이나 친년왕국적 면모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사상의 우량한 전통에 유의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나,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적·억압적 요소나 미신적·가부장적 요소는 배격한다.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 지배와 예속에 반대하며, 인간 자유성에 대한 긍정과 자연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생태적 관점을 견지한다. 이 점에서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정치·경제적 제국주의로부터 문화적 제국주의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제국주의적 지배에 반대하며, 제3세계적 입장을 취한다. 요컨대 비판적 생태문예학은 사회적·정치적·윤리적·미학적 문제와 생태적 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연생태계 위기의 극복에 있어 문학의 역할을 최대화하고자 한다.